

초대의 말씀

노예선의 벤허처럼 눈에 불을 켜야만 나는 사는 것이었다.

그것을 김윤식은 내게 가르쳤다

(이승하의 시 「문학평론가 김윤식」 일부)

제1회 김윤식 강좌 <판소리가 걸어온 길>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김윤식 강좌는 일생을 읽기와 쓰기에 힘쓰며 한국 근대 문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신 고 김윤식 선생을 기리고자 기획된 것으로서, 문학 및 문학교육 연구의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중견 연구자에게 연속 강연과 단행본 간행을 통해 자신의 학문 세계를 학계와 학생 대중, 독자들에게 펼쳐 보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는 제1회 김윤식 강좌의 강사로 판소리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과 성과를 내오신 김종철 선생님을 선정하여, <판소리가 걸어온 길 - 생활 현실, 이념, 미(美)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연속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자와 학생은 물론, 문학을 사랑하고 김윤식 선생의 ‘살아있는 정신’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부디 오셔서 “벤허처럼 눈에 불을 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장/김윤식 강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 본 관

김윤식 강좌 선정위원회 위원장 윤 대 석 올림